

# “이장이 뭐길래...” 두동강 난 마을

### 보성 문덕면 46세대 마을 집성촌 vs 귀농민 편 갈려 이장 임기 놓고 선거 갈등...형사고발·행정심판 청구

이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고발에 이어 행정심판 청구로까지 이어지면서 평화롭던 보성군의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

전남도는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지만,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갈라진 공동체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성군 문덕면사무소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비극의 시작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46세대 1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보성군 문덕면 한 마을에서 이장 임기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끝에 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이

장이었던 A(56)씨는 임기 3년을, 신임 이장에 출마한 C(53)씨는 관례를 이유로 2년을 주장했다. C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투표를 시작했지만, A씨를 지지한 주민들은 퇴장해버렸다. C씨는 이 선거에서 당선돼 신임 이장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당시 면장이 선거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C씨의 임명을 미룬 것이다. C씨는 정당한 주민총회라며 임명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면장은 이장선거를 재공고했고, 지난 7월 재선거가 열리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C씨는 재선거

가 원천무효라며 참여를 거부, A씨의 부인 B(53)씨가 단독 출마해 당선된 것이다.

C씨는 이렇게 되자 A씨를 공금 횡령, 폭력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A씨 부부는 맞고소를 해놓은 상태. 또 C씨는 전남도에 보성군 문덕면사무소를 상대로 ‘이장임명 무효확인 및 이행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마을은 서로 편이 갈려 대화조차 주저하는 분위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 한 마을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온 성씨인 A씨와 15년 전 귀농해 정착한 C씨로 대표되는 공동체 구성원 간 갈등이 내재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분쟁 초기에 면사무소가 적절한 중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씨는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A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민들이 나서달라고 해 이장에 출마했다”며 “면사무소측이 이장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A씨의 부인이자 현 이장인 B씨는 이에 대해 “지난 2월 선거는 주민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 무효”라며 “재선거에 불참해놓고 이제 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생긴 이후 첫 사례일 정도로 이례적인 안건”이라며 “청구인이 승소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이장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연철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징계 공무원 비율 전국 1위

1천명당 13건, 전국 평균 보다 4건 더 많아...광주는 8건

지난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비율이 전국에서 전남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전행정부 ‘내고장 알리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1000명당 비위 징계 비율(건)은 전남이 13.3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남지역 공무원 1만9686명 가운데 지난해 비위 건수는 2465건이었으며 1000명 당

7.58건이다. 광주(7019명)는 53건으로 1000명당 7.55건으로 평균 수준이었다. 특히 전남은 지난 2011년 12.1건에서 2012년 9.43건으로 10건 이하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광주는 2012년 7.87건, 2011년에는 7.44건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은 7~9건 수준이다.

공무원 징계는 정도가 가장 낮은 권력과 감부 등 경징계와 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있다.

연철기자 chadol@kwangju.co.kr

## 배추-해남·진도, 마늘-고흥·해남·신안

전남도, 채소류 주산지 지정...“수급 안정·경쟁력 확보”

전남 채소류 주산지가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수급 안정과 경쟁력 확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류 주산지 중심의 적정 재배와 생산량 조절을 위해 내년부터 품목별로 시·군 단위 주산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주산지는 배추 500ha, 고추 700ha, 마늘 1000ha, 양파 800ha, 대파 250ha 이상 재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배추(해남과 진도), 가을무(영암), 고추(해남·영광), 마늘(고흥·해남·신안), 양파(무안·신안·해남·함평), 대파(진도·신안·영광), 참깨(고흥·해남·영암·무안·함평·신안), 버

섯(하순·함평·무안), 특작물(북분자 장성, 산수유 구례) 등 9개 채소류 주산지를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주산지 농가와 영농법인을 내년부터 ‘발작물 경영체육성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적정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조절해 채소류 수급 안정과 경쟁력을 높여기로 했다.

전남도의 관계자는 “정부의 주산지 지정과 별도로 민선 6기 공약인 농업정보망이 신설돼 채소류 가격과 수급 동향을 수시로 농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과잉재배에 따른 가격 폭락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철기자 chadol@kwangju.co.kr



면세점에 中 관광객 ‘복적’ 다음 달 1~7일 중국 최대 연휴 국경절을 앞두고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이 중국인 관광객(오우커·遊客)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해외관광 지출, 日 추월할 듯

지난해 23조원 사상 최대...원화강세로 씀씀이 커져

올해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에 쓴 돈이 처음으로 일본인들의 해외 관광지출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인구 5000만명인 한국의 해외 관광지출이 인구 1억 3000만명의 일본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원화 강세로 여행비 부담이 줄어든 한국인이 외국에서의 관광지출을 크게 늘리는데 비해 일본인들은 원화 약세 영향을 받아 외국 여행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관광지출액은 217억달러(약 22조700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에 일본의 해외 관광지출은 218억달러로 격차가 1억달러(약 1000억원)까지 좁혀졌다.

일본의 인구 규모는 한국의 2.6배인데다 국내총생산(GDP)은 4배여서 그동안 해외 관광지출액은 한국보다 월등히 많았다. 10년 전인 2004년만 해도 일본의

연간 해외 관광지출은 382억달러인 반면, 한국은 124억달러에 불과해 격차가 258억달러에 달했다.

일본의 해외 관광지출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평균 270억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사정이 달라졌다. 2012년 말 달러당 86.76엔이었던 달러·엔 환율은 작년 말 105.04엔으로 21.1% 절하됐다. 해외 여행을 나가는 일본인 입장에서 비행

기표, 호텔비 등이 1년 만에 20% 이상 비싸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관광지출을 2012년 279억달러에서 작년 218억달러로 1년 새 61억달러(21.9%) 줄였다.

반면, 원화 강세와 저가 항공사의 확산 등으로 여행비 부담이 줄어든 한국인들은 해외 관광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올해 1~7월 해외로 나간 한국 관광객은 906만66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다.

연철기자 chadol@kwangju.co.kr

## ‘지하공간 통합지도’ 만든다

국토부, 싱크홀 대비...지하개발 때 ‘사전 안전성 분석’ 도입

싱크홀(땅꺼짐) 현상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구축된다. 또 지방이 취약한 지역에서 대규모 지하개발을 할 때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싱크홀 대처를 위해 구성된 범정부 민간 합동 특별팀(TF)을 통해 이런 내용의 싱크홀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해 제공하는 지도다.

이 지도는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매설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등 지하 구조물 ▲시추·관정(우물)·지질 등 지반과 관련된 정보를 한데 모아 3차원 기반으로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매설물 정보는

대구 지하철 참사 후 통합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정보는 관리기관마다 뿔뿔이 흩어져 관리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통합지도를 토대로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8월 18일~9월 4일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점검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 침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연철기자 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노안리식/Kams Inlay를 이용한 시술/최초접 안공 수형체/레스토렌즈/렌즈를 나비엔진 인레이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부작용:수술초기 야간 빛반전,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외과광고심의의뢰 제 140611-증-59153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뢰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볼세라, 써미지, 웨나트 복합치료  
② 에드를레이저: 스쿠스팀, 아이클, 브이빔, 프락셀  
③ 3세 오션 레이저: 쉐닝맥스, 디아오우드제오  
④ 피 부 미 백: 쉐닝맥스, 쉐닝맥스, 쉐닝맥스  
⑤ 주름·출혈: 프락셀레이저, 울트라펄스레이저, 프락셀레이저, 인트라셀, 프락셀 세너  
⑥ 모공: 엔티지, 프락셀5종  
⑦ 비인: 네오모토,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아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윤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 525-7555